

지역경제, 새 대통령에 바란다

지역 경제계에서도 새 대통령에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공약 실천, 부동산 규제 철폐, 일자리 창출,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새정부,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막아달라”

도시재생 등 건설공약 추진
김영구 건설협회전남도회장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펼칠 새 정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는 사업가 입장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새 정부가 공약대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우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건의한 공약 과제를 채택했다. 이 공약들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 언급된 사안들이다. 과거 정부 동안 광주·전남의 대선 공약 중 완료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실천의지이다. 당선을 위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이 공약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눈에 띄는 건설관련 공약 중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사업 5개년 계획’ 등을 선순위로 포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 개선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제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쌓아 온 경륜과 높은 시선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뤄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주기를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에 기대한다.

여러 현안중에서도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지표들 앞에서 대통령의 어깨도 무거울 것이다.

새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언착륙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우선은 집담대출의 조속한 정상화나 아파트 계약율이 우수하거나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단지에 대해서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합리적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주택 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

중기 경제성장 패러다임 혁신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국내외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새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이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한국경제가 내수침체와 저출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다양한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민 소중한 일터 지켜달라
이용범 금타 협력업체 협의대표



새로운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갈등의 고리를 풀고 올바른 정책과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국가안보를 제대로 이뤄 주길 바란다.

지역 경제인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9년 동안 소외됐던 호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호타이어의 잘못된 해외 매각을 막고 순리대로 공정하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했고, 지금은 호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이며 수많은 협력업체를 일구고 지역민들의 소중한 일터가 됐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민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주길 바란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시작점
이봉철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



분열의 시대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제4차 혁명시대의 우뚝 선 지도자로서 발전과 도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 발전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에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의 고용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더욱 요청되는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이다.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정립과 육성이다.

성공한 대기업이 존경받는 사회보다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졌을 때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싣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진과 도약을 기대한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규제
임승우 광주시상인연합회장



축발의 영광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책무를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마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경기 불황과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구직자들이 창업으로 물리고 있다.

광주 서구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는 준대 규모 점포로 분류돼 유통법상 규제를 받는 데도 끈질기게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파고대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리가 허술한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준대 규모 점포들의 입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멸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새 대통령은 각 후보들의 제시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맞춤형 정책 바래
문상식 광주양동시장상인회장



19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어느 쪽으로도 취우치지 않고 분열의 시대를 치유하고 발전과 도약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 해 온 전통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역 경제의 원천이자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확산과 온라인·모바일 쇼핑 등으로 대표되는 소비행태의 변화로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공약이 그쳤다.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거나 현행 월 2회인 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기존의 공약을 되풀이 하는 것에 그쳤다.

각 전통시장별로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 일괄적인 정책이 아닌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기업 육성 정책·지원 강화
김진아 역서사소 대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새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임을 이해하고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꿈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에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를 갖고도 자금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높은 시장 진입 장벽, 까다로운 대출 조건, 제한된 사업 지원 자격 등은 개선해야 한다.

반쪽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청년기업이 지역 경제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과 지원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제19대 대통령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역사

“역대 집권초 평균 23~26% 상승”

제19대 대통령은 코스피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최근 증시 환경이나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 1~2년간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던 전례 등을 고려하면 신임 대통령은 지수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전 거래일보다 51.52포인트(2.30%) 오른 2,292.76으로 마감, 이렇게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4월에 6년 만에 종전 사상 최고치(2,238.96)를 경신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더 강하게 몰아붙여 이를 연속 증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잡아차였다.

제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코스피의 고공비행은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기업 실적 호조 등 증시를 떠받치는 기초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데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 중심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도 코스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데에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역대 대통령 집권 초기 1~2년 차까지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했다는 분석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케이프투자증권이 직선세 개헌 이후 뽑힌 13~18대 대통령 6명의 재임 기간 코스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기 1~2년간의 평균수익률이 23~26%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소폭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경기 부양 노력을 기울인 시기와 글로벌 경기 환경 개선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케이프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후 한 달간 코스피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여섯 차례 대선(13~18대)에서 3차례는 오르고 3차례는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3대 대선 한 달 후 코스피 상승률이 24.08%로 가장 높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대선 때도 외환위기 여파에도 18.5% 올랐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후 한 달 주가는 10.26%와 6.81% 각각 하락했다.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책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온 점도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연남뉴스

1:1 정확하고 친절하고 법률상담과 신속한 업무진행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 | | |
|---|--|---|---|---|
| <p>光州地方法院所屬 金連玉 法務士</p> <p>법인 분할·합병·조직변경 전문 부동산 등기, 보전처분, 민사, 경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 무료</p> <p>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 062) 226_3800</p> | <p>법무행정 민원서류대행 (행정사/부동산 공경매사/권리분석사/분양상담사)</p> <p>대표 김인호</p> <p>☎062) 222-1782</p> | <p>법무사 김명호 사무소</p> <p>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p> <p>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1 (2층) ☎062) 222-0224</p> | <p>법무사 이병직 사무소</p> <p>기타법률 상담 등기 전문</p> <p>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110호(지산동,법조타운) ☎062) 223-8081~2</p> | <p>장흥표법무사사무소</p> <p>개인회생·파산전문</p> <p>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116 ☎061) 793-5555</p> |
|---|--|---|---|---|

Wedding Hall

P&J Princess Jewelry Wedding

고객을 배려한 세련된 인테리어 결혼식 / 각종 연회 / 컨벤션웨딩홀 당신을 초대합니다.

http://www.pnjwedding.kr 피앤제이 웨딩홀 T: 361-6677 상무지구 태양열 주차장 뒷편